

“환자는 물건이 아니다”

東京서 「醫療人類學」국제심포지엄

체의수정이나 장기이식으로 상징되는 의료기술의 진보는 눈부신바가 있으나 한편 환자를 「물건」으로 취급하는 풍조 및 의료재정의 파탄과 같은 문제도 많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의료를 단지 자연과학적인 기술로만 보는것이 아니라 문화인류학적 시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고자 하는 「의료인류학」이 미국을 중심으로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12일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는 「의료인류학의 가능성-21세기의 의료와 그전망」이란 주제를 내걸고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의료인류학의 제1인자인 미국 하버드대학의 아서 크라이먼교수등 24명이 참석, 민간의료나 국제의료교류, 간호, 정신의료, 죽음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의료인류학이 문화인류학의 한분야로서 확립된 것은 미국에서 1960년대 무렵이었다. 40년대부터 50년대에 걸쳐 미국이나 세계보건기구(WHO)가 중심이 되어 아시아·아프리카에 의료원조를 폈으나 현대 서양의학이 그대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문화적인 마찰이나 충돌을 일으켰다. 예를 들면 도시에 병원을 세우거나 가장 첨단적인 의료기기를 도입하거나 하면, 그 유지관리를 위해 지방 의사들을 흡수하지

않으면 안되며, 결과적으로 지방의료의 자립을 무너트리는 것으로 되었다. 또한 기도(祈禱)나 동물 및 식물로 만드는 주약(呪藥)이 의료의 중심이었던 아프리카의 마을에 근대적인 설비를 도입해도 주민들은 「강요」로 밖에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가 되었다.

그래서 자국내에 많은 상이한 민족이나 문화를 갖고 있는 미국은 60년대 비(非)백인계 민족들의 공민권운동의 고양을 계기로 백인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에 대해 재평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미국에서 의료인류학이 발전하게된 또 하나의 배경으로서 70년대에 비롯된 의료기술의 급속한 진보를 달수 있다. 인공장기의 개발이나 장기이식의 보급은 의료비를 증대시켜 보험재정을 적자가 되게 했다.

근대 서양의학을 항생물질이나 백신등의 개발로 많은 감염증을 극복함으로써 사망률을 줄이고 수명을 연장시켰다고 일반적으로 말한다. 그러나 영국의 토마스 맥퀸박사 같이 「사망률의 저하는 영양이나 위생상태가 개선되었기 때문인 것이지 예방접종의 영향등은 매우 미미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까지도 있다.